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다시 한번 불국토를 꿈꾸며

황룡사 9층 목탑

한반도의 불교사를 통틀어 가장 큰 탑은 무엇인가? 그 탑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소재했던 황룡사 9층목탑이다. 신라왕실의 권위와 호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은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장육존상(丈六尊像),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천사옥대(天賜玉帶), 그리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 9층목탑이다.

이 세 가지는 통일신라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보물들일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흔적이거나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이 황룡사지에 있는 구층목탑의 유적이다.

기록에 의하면 2만5천평에 달하는 습지를 메워서 탑을 지었다고 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상상을 초월한다. 탑의 높이 또한 9층까지 탐지(塔誌) 기록 당시의 당적(唐尺)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약 53.45m, 상륜부(上輪部)까지 합하면 약 66.70m나 되는 거대한 것이다. 또한 조영(造營) 당시의 척수인 동위척(東魏尺)으로 따진다면 80m 이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초대형 건축물이었다 한다.

자장율사 탑 조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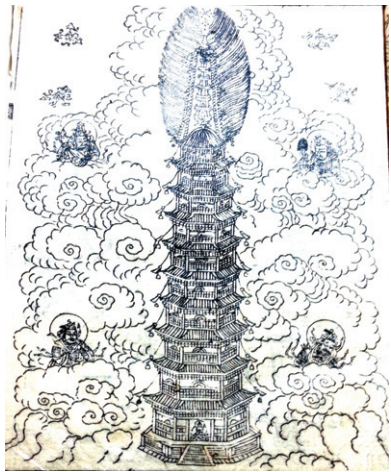
국가 통일과 안연 염원

그러면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서 왜 선덕여왕은 세웠던 것일까? 삼국유사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자장율사께서 중국의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인(神人)이 나타나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물었다.

신인인 태화지의 용왕은 자장율사가 말갈과 왜국, 고구려와 백제의 침범으로 어려운 신라의 사정을 말하자, 충고의 간언을 전한다. 신라의 왕은 여자이기에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이웃나라가 침략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빨리 돌아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장율사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묻자, 황룡사의 호법용이 그의 아들임을 밝히고, 황룡사 안에 9층탑을 세울 것을 조언한다. 그리하면 구한(九韓, 고구려, 백제, 말갈, 일본을 비롯한 9개 나라)이 항복하고 조공할 것이며, 왕업이 길이 편안하다고 충고한다.

또 탑을 세운 후 팔관회를 열어 죄인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하곤 사라진



법화경 변상도 사천왕 호위 9층탑

다. 그리하여 서기 643년 자장율사는 귀국하자마자 선덕여왕을 설득해서 황룡사 9층탑을 완성한다.

그리곤 지은 지 600여년 만에 황룡사 9층목탑은 고종 25년 무술(1238년) 겨울에 몽고의 침략으로 탑과 장육존상과 절의 전각들이 모두 불에 타버린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황룡사 9층 목탑은 한반도 불교사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었던 묘법연화경에 삽화 변상도로 항상 그려져 왔다. 물론 법화경의 제11품 견보탑품(見寶塔品)이 불탑승배사상을 반영하고,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성에 모태가 되기도 한다는 설도 있다.

이 법화경 목판본 변상도를 보면, 사대 천왕이 불탑을 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는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황룡사 9층탑의 범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번영케 했으며 민족을 지켰던 것이다.

이제 겨울은 가고, 매화가 꽃피는 봄이 오려 하고 있다. 푸른 기와집에 여인의 향기가 가득하더라도 한반도에 부처님의 가피와 가르침이 여전하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신라시대처럼 온 국민이 불자였던 시대가 다시 한 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지난 2년간 학문과 지식이 변변치 않고, 재주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글을 짓고, 부끄러운 글들을 강호(江湖)의 제현(諸賢)들에게 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불보살님들께 참회진언을 외우며, 그간 잘못의 용서를 빌며 마지막 기고를 보낸다.

“음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음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음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글>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한지에서 피어난 연꽃의 향기

김미선 개인전...31일까지 명지미술관

‘지호(紙糊)공예’란 한지를 죽으로 반죽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든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쓰다버린 종이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거나, 물건을 담아놓는 용기로 사용해 왔다. 한지를 단단하게 뭉치면 나무 만큼이나 단단해져 용기와 가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호공예의 특징이다.

연잎 모양의 탁자와 스탠드가 지호공예로 탄생했다. 12월 31일까지 담양 명지 미술관에서 열리는 김미선 작가의 ‘자연 속 그녀의 일상’ 전시에서는 ‘연잎 향기를 품다’ 외 작품 56점이 선보인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연꽃과 연잎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 “연꽃이 깨끗하고 맑은 향기를 품어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다탁 같은 경우에는 절집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늘 연꽃의 문양을 많이 이용하죠. 이번 전시에서는 직접 연잎을 조각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그녀에게 있어 불교와의 인연은 특별했다. 늦은 결혼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고민할 때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한다. “가톨릭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불자 남편을 만났고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경상도 안성이라는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렸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딸을 얻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절에 드나들었지만 그때부터 천수경 금강경 읽으며 불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절집의 향기와 절집의 이미지들은 제 작품에 무척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그녀는 산업디자인을 다시 전공하게 됐고 이후 전통 기법의 지호 공예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녀의 작품들

안정사서 기도하며 불교와 인연

지호공예로 연꽃 등 탁자 제작

늘 금강경 독송하며 마음 밝혀

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재를 이용한다. 한지를 직접 떠서 깎고 황토를 이용한 한지 벽지, 대형 탁자에 옷칠을 해 표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작품은 물고기다. “물고기는 부귀 자손번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행복물고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물고기 지느러미를 한지공예로 표현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12월 31일까지 담양 명지 미술관에서 열리는 김미선 작가의 ‘자연 속 그녀의 일상’ 전시에서는 ‘연잎 향기를 품다’ 외 작품 56점이 선보인다.



않았어요. 기와무늬로 문양을 찍어서 표면을 완성해 냈어요. 종이 성질이 입자가 엉켜있기 때문에 흠보다 다루기 힘들죠. 그래서 투박한 느낌이 있죠. 이를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금강경 천수경 등을 독송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김 씨는 오늘도 연꽃을 통해 맑고 밝은 세상을 대중들에게 전해주

고 있다. 김미선 작가는 호남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종이공예공모대전 금상, 한국국제미술대전 금상, 한국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전시로는 담양 슬로시티 김미선 초대전, 한중우수작가 초대전, 한일작가 50인전, 호주시드니 이스트우드 초대전 등이 있다. (010)2611-1684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나 자신의 행복 찾기에 집중해야”

헤민 스님 ‘승승장구’ 출연... 시청률 9.7% 동시간대 1위



헤민 스님은 12월 18일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허버드대 학력을 버리고 출가한 이유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행복론 등을 공개했다.

헤민 스님이 토크쇼에 출연해 솔직담백한 자기 고백으로 화제를 모았다. 시대의 멘토라 불리는 스님은 12월 18일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허버드대 학력을 버리고 출가한 이유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행복론 등을 공개했다.

“도사를 좋아하는 동네 스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헤민 스님은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스마트폰 SNS를 통해 대중

들과 소통하는 ‘신상 멘토’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스님은 근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찜질방과 라볶이를 즐기는 소탈한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라볶이를 먹을 때 어묵이 들어 있어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몰래 먹는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헤민 스님이 출가한 이유는 뭘까? 스님은 “남몰래 에이즈 마을에서 봉

사활동을 하던 친구를 보고 감명을 받았고, 또 일상을 함께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며 삶의 이유와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수행자의 삶, 출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자신이 행복한 것 찾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헤민 스님은 몰래 온 손님인 KBS 2TV '개그콘서트'의 양상국, 김지민은 물론, '승승장구' MC인 탁재훈과 이수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 방청객들이 털어놓은 고민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 대신 정곡을 찌르는 직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방송 후 시청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방송이었다”, “헤민 스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좋은 마음 많이 배워간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승승장구’ 헤민 스님 편은 전국시청률 9.7%(AGB닐슨미디어리서치 기준)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 했다.

정혜숙 기자

티베트 여가수 겐상추키 한국서 첫 음반 발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 겐상 추키의 첫 번째 앨범 <Voice from Tara>가 한국에서 발매됐다. 콘텐츠코리아는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발매 이래 10여년 만에 국내 처음 라이센스로 발매되는 앨범이다. 겐상 추키는 나왕 케축과 더불어 티베트를 전세계에 알리고 현재 세계 월드뮤직분야에서 티베트의 전통 음악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있는 음악인”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티베트 고유의 전통음악과 장법을 토대로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 서구의 악기와 현대음악 요소를 조화롭게 접목했다. 또한 티베트 불교의 설법과 만트라에서부터 제14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경배와 찬양, 제 6대 달라이 라마의 사랑의 시, 망명생활을 하는 티베트인들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유목민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부르는 공주가(供酒歌)에 등이 담겨져 있다.



확실한 편저/국판 양장/404쪽/20,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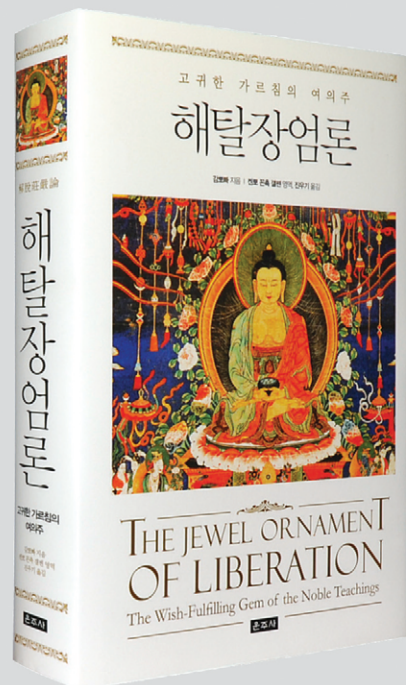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불교 공부사전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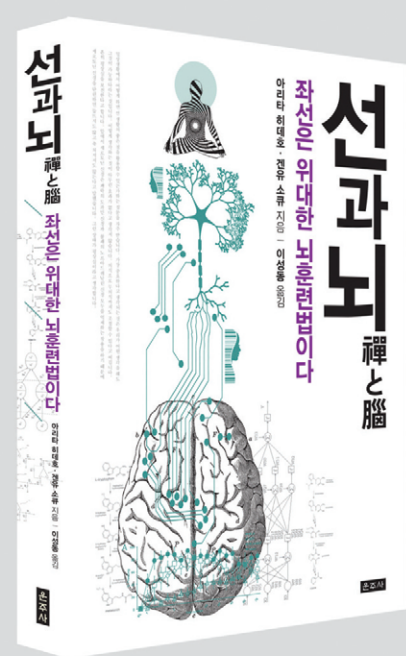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감뵈빠 저, 진우기 역/ 신국판 양장/ 628쪽/28,000원

해탈장엄론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아리타 히데호·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선과 뇌

